
2022

Porter Prize Excellence in CSV

제9회 CSV·ESG 포터상 우수기업 사례집



한진

단순히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효율화와 경험하지 못한 편리함을 제공



규모가 작아 고단가로 저품질의 택배서비스를 이용중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합리적인 단가와 고도화된 물류서비스 제공하는 '원클릭 택배서비스' 런칭했습니다.

Background(배경)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최고의 물류서비스, 지속성장을 위한 변화·혁신 주도, 윤리·정도 경영,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인력 양성, 사회공헌과 상생경영을 목표로 한다. 진정성, 지속가능성, 사업연계성의 3원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선도적인 CSV 사업 모델화”를 추구한다. 각 사업별 핵심인력으로 구성된 ‘CSV 시너지추진단’을 중심으로 전사 차원의 CSV 활동 추진 및 경영층·임직원 대상으로 주 1회 CSV 운영 현황 공유·피드백이 이루어진다. 한진의 물류 역량을 사회 곳곳에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CSV 활동 수행 중이다. 소상공인·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3개 프로젝트), 물류 인프라·노하우를 활용한 녹색물류를 추구하는 ‘친환경’(2개), 사회문제 선제적 해결을 위한 ‘공익 활동’(3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창출을 위한 ‘고객 만족’(3개) 총 4개의 카테고리에서 11개의 CSV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Activities

한진은 택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물류 양극화를 해소하고 원클릭을 통해 편리하고 합리적인 택배 서비스를 통한 성장을 지원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쿼·당일배송, 쇼핑물 통합관리, 창고관리 시스템인 풀필먼트, 홈페이지 고도화, 부

자재 구매, 해외판매 지원이 있다. 2019년 원클릭 택배 서비스를 런칭 및 운영 시작하였으며, 20~21년 원클릭 Scale-up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22년부터는 국내외 판로 및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Subject(주체)

한진은 원클릭 택배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고객 및 매출을 확대해왔다.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사업 초기 물류비를 경감하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및 판로개척을 통한 사업 성장 가능성 제고가 가능하다. 제휴업체는 한진 고객 네트워크 대상 자사 서비스 제공으로 매출 및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한다. 쿼·당일배송 제휴업체는 고고엑스, 부자재 구매는 날개박스 (친환경 제품 기반), 해외 판매 지원은 CGETC, 풀필먼트는 품고/위킵, 홈페이지 고도화는 NHN고도, 퍼스트 몰로 이루어져 있다.

Performance(성과)

원클릭 택배 서비스를 통해 가입 고객 5만개 사, 이용 건수 16백만 건(box), 원클릭 매출 407억 원을 달성했다. 일반택배 이용 시 786억 원의 비용이 추산되었지만 원클릭 물류 이용실적은 407억 원으로 총 379억 원 물류비 절감 가치를 만들어 냈다. 현재까지 약 25억 원의 예산으로 CSV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으며, 종합평가 결과 SROI*가 4,337% 수준으로 예산 대비 43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냈다.

*SROI(Social Return Investment): 기업이 생산한 사회·경제적가치 창출효과

CSV프레임워크(P.D.C.A)를 통해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CSV사업모델 발굴·운영



Process

한진은 각 사업별 핵심인력으로 구성된 'CSV 시너지추진단'을 중심으로 대내외 CSV 활동을 운영한다. 주 1회 경영층 대상으로 한진의 CSV 운영현황 공유와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CSV팀 중심으로는 각 사업과 연계한 전사 차원의 CSV 활동이 실시된다.

또한 한진은 CSV 프레임워크(P.D.C.A)를 발굴 및 운영하고 있다. 실행주체, 사업환경 분석을 통한 계획수립(Plan), 당사 역량/자원 활용 및 운영 설계를 통한 CSV 실행(Do), 내부 성과평가 및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통한 다차원평가(Check),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점 보완 진행(Action) 순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구성된다.

CSV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 런칭까지 사업모델링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전사 차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내부 지원 체계를 살펴보면 신사업 타당성 분석은 경영기획실, 재무 및 회계 리스크 관리는 재무관리실, 계약 등의 법률 리스크 관리는 법무실, IT·정보보안은 안전보안그룹, 사회·환경 관련은 ESG위원회가 맡아 전사 차원의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외부 네트워크(Hanjin Open Innovation Hub)를 통해 국내·외 스타트업, 전문 기업 및 대학, 액셀러레이터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규사업 및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해관계자별 CSV커뮤니케이션 채널

대내외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현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한진 CSV 발전 방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다. 이해관계자별 CSV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정보공개 및 소통이 이루어진다. 주주·투자자는 주주총회, 분기·반기 보고서 이외에도 IR미팅이 이루어진다. 내부적으로는 노사협의회와 소통 미팅 (훗 미팅), Hanway 게시판 운영 등 내부적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uture(전망)

한진은 원클릭 프로젝트 이외에도 '함안수박 프로젝트', '내 지갑 속 선물', 'Green On Hanjin', 한진 Love Connect, '호프데이프 캠페인'을 통해 CSV 프로젝트를 확대 및 지속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를 통해 정량적인 성과를 관리해오고 있다. 향후 5년간 연 평균 16.4억원의 예산투입 계획에 있으며 한진의 물류 역량을 활용한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지속 및 확대해 나갈 것이다.